

천주교 전주교구 주보  
전주시 서노송동 560-6  
전화 85-0041~3  
FAX (0652) 85-0119

# 순정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만들겠느냐?”

## 사랑의 다리를 놓아 봅시다



김영신 신부  
해성중교 종교감

“  
오직 우리에게 나눌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세상에는  
눈물과 배고픔과 외로움이  
아직도 솔하게 남아  
있습니다.  
메마른 인정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과 어두운 뒷골목  
을 비추는 빛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

“너희도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마태오5,16) 오늘 복음에서 들려 주시는 이 말씀은 하느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밝혀 주십니다. 세상의 소금이니 짠 맛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하고, 세상의 빛이니 모든 사람을 다 밝게 비추어서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아 찬양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유고슬라비아에서 태어난 마더 데레사 수녀는 인도의 소금으로, 그래서 이 세상의 빛으로 사는 분입니다. 캘커타의 빈민가에서 그 누구도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빈민·고아·나병환자, 특히 죽음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몸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가 켜 작은 불빛은 「사랑의 선교회」라는 수도회로 큰 빛이 되었습니다.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드러낸 그의 사랑 실천은 요한 23세의 평화상 수상(1971년)과 노벨 평화상 수상(1979년)으로 온 세상에 또렷하게 알려졌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는 배고파서 굶주려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버림받은 죄없는 아이들도, 사람들의 차가운 눈초리에 외로움을 느끼는 정신박약이나 지체부자유자도 적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이들도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으니 어느 누구도 버림받거나 따돌림 당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부(재화)는 가진 자들이 잘 나누기만 한다면 배고픔을 없애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나눌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눈물과 배고픔과 외로움이 아직도 솔하게 남아 있습니다.

메마른 인정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과 어두운 뒷골목을 비추는 빛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가정과 일터를 박차고 뒷골목에 모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썩지 않게 하고 어둡지 않게 하면서, 우리가 가진 바를 나눔으로써 뒷걸에 소외된 형제들이 하느님을 알아 찬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구에서 오래전부터 시작해온 사회복지회의 일에 동참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사랑의 다리」 회원이 될 때, 우리는 이 지역사회의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 여명

## 참교육을 위한 몇 가지 시도의 제시

한상갑

이 시대에는 특별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그 가운데서 우리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인가?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청소년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 것으로 믿는다. 날로 급증하는 청소년 범죄, 그것도 그 연령층이 차 낮아지고 있으니 더욱 문제이다. 그리고 해마다 고등학교를 떠나 70%의 청소년이 제 갈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회는 학교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교의 사명을 이렇게 르친다. 학교는 청소년들의 ①지적능력 개발, ②올바른 판단력 배양, ③문화유산의 전승을 통한 가치관의 발전, ④직업생활의 비, ⑤교우생활의 조성을 통한 상호 이해의 증진에 힘써야 한다고 그리고 특별히 가톨릭계 학교는 ①자유와 사랑의 정신으로 충만 공동체 분위기의 조성, ②청소년들이 자기인격 발전과 새로운 조물로 성장하도록 도우며, ③그들이 하느님 나라의 확장을 위 봉사하도록 준비시켜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한가 가톨릭계 학교조차도 그 본래의 사명보다는 30%의 성공을 위해 %를 방치하는 사회현상에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것은 아니지?

물론 학교교육은 그것을 전담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소관이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존엄한 인격의 소유자로서 교육에 하여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교육에 대해서 제3자나 방관자가 아닌 주체로서의 임무를 포기해서 안된다. 끊임없이 교육현장을 지켜보며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 참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

여기서 몇 가지의 시도해 볼만한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첫째 30%를 위한 입시위주의 교육이다. 이것은 언젠가는 무너뜨려야 벽이다. 이를 위해 중학교교육에서부터 실업계 진학을 권장하는 교육 시도해야 한다. 그리고 방황하는 70%를 위한 전문인 양성을 위 교육도 시도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녀공학의 시도이다. 초 중·고·대학교육을 통해서, 중고등학교의 6년간을 남녀 분리시는 교육은 청소년들의 정서순화나 성심리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는 극복되어야 한다. 그래서 남녀공학의 시도를 제시 본다.

물론 이러한 새로운 시도에는 감수해야 할 몇가지 문제도 수반 다. 예를 들면 세칭 3류학교라는 따돌림도 있을 수 있겠고, 교사들 이해와 관계되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언젠가 벗어 던져야 할 묵은 짐들이다. 참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 교육을 위해서.

<평협 부회장>

## 사랑하는 마음의 집이 없었기에.....

나는 주렸으니 음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순수한 마음에서 우리나라 그 평화에  
나는 목말랐으니, 물 때문이 아니라  
전쟁에 시달려 타는 듯한 갈증으로  
평화의 물이 아쉬웠기에  
나는 헐벗었으니  
옷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귀한 인간이 그 존엄성을 박탈당하였기 때문에  
나는 집이 없었으니  
벽돌집이 아니라  
이해하는 마음, 감싸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의 집이 없었기에

- 마더 데레사 -



# 평신도들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입니다

## —평신도들은 교구의 중대성을 바로 이해해야—

김치덕 / 평협회장

1980년대에는 우리 교회가 성숙된 교회로 되기에 노력해 왔던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조선구 설정 150주년 행사, 선교 200주년 행사, 제2차 세계성체대회 등). 우리는 축복된 이 땅에서 3위의 신앙 선조들을 성인으로 모시고 사는 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구도 자치교구정 50주년을 보내면서 신자수 11만명으로 성장 성숙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뜻깊고 의미은 80년대를 보내고 대망의 2,000년을 맞이하기 한 1990년 새해에 우리 평신도들이 자신을 성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서나 신약 성서에서는 모두 포도나무의 미지를 이용하여 하느님 백성의 신비를 표현하고 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가르침도 복음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를 이용하여 교회는 도나무임을 밝히고 있습니다(교회헌장 6항). 회의 내적 성격을 강조하는 이러한 시각에서 볼 평신도는 단지 포도원 일꾼일 뿐만 아니라 포원의 중요한 일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지역에서 드러나 보이는 것은 바로 우의 본당입니다. 본당은 주로 어떤 조직이나 지역은 어떤 건물이나 아니라 오로지 한마음으로 결된 형제적 가정이고, 하느님의 가정이며, 형제가 감동과 따뜻하게 사람을 맞아 주는 큰 집이며, 자 공동체를 할 수 있습니다. 신앙과 전례와 랑의 공동체인 우리의 본당들이 전례를 통해 회와 일치하고, 각자의 신앙생활이 구체적으로 러나도록 해야 하며,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사랑하고 도와줌으로써 사랑으로 일치한 그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는 사랑과 친교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평신도들은 교구의 중대성을 언제나 바로 이해 해야 합니다. 본당은 교구의 세포와 같은 것이므로 교구의 사목자인 주교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는 언제나 교구 계획에 협력할 각오가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1990년 교구 평협의 계획도 "성찬의 삶"을 살기 위해 가족과 함께 1달에 1회 미사에 참석하며, 가족끼리 모여 기도하고, 대화 하는 가정 공동체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또한 성체안에 본당의 성화를 위하여 모든 신자는 본당내 한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며,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입교시켜 복음화에 앞장서자는 것입니다. 본당과 교구의 일치에 위해 본당은 교구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구에서 전개하고 있는 사회복지 운동에 참여하여 사랑을 실천해야 하겠습니까.

"당신들도 내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십시오"(마태 20,4) 하신 주님의 분부를 받아들여 우리 생활을 통하여 드러나 보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모든 사람의 선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나가 언제나 지나 썩지 않는 열매를 맺어라"(요한 15,16)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여 선교 300년대를 살아 가는 평신도로서 교구 공동체의 일치를 통하여 순교 선조들의 위업을 계승하는 살아 있는 교구가 되도록 합시다.

# 교구 2개본당 신설

지난 1월 16일 교구 참사회의는 55번째 본당인 전주시 중화산동 본당, 56번째인 남원시 도동동 본당을 신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전주교구는 56개 본당의 신도 11만5천여명 사제 113명의 큰 교구로 그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많은 난제(難題)를 안고 있다. 본당은 신설되었으나 아직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는 본당이 무려 10개 본당이나 된다. 현재 성전을 신축중이거나 조립식 건물 임시 성전을 사용하고 있는 본당은 다음과 같다.

### \* 전주 \*

서신동 성당: ①전주시 서신동 55-4(3층) 전화(사제관4-2214) 주임신부-박성팔 ②신자수: 1033명 ③관할구역: 서신동, 진북동(어은골) ④현재신축현황: 신축중(7월말 완공예정)

효자우전 성당: ①전주시 효자동1가 406 전화(사제관86-3712, 사무실86-3711, 수녀원 87-0711) 주임신부-박창신 ②신자수: 1573명 ③관할구역: 효자1가 일부, 효자2, 3가, 삼천2, 3가, 용복동, 만성동, 이서면, 구이면 ④현재신축현황: 조립식 가건물, 아직 신축계획없음.

몽머리 성당: ①전주시 효자동1가 70-3, 사제관-전주시 효자3단지APT 101동 505호 전화(사제관84-8123, 사무실87-0441) 주임신부-조정오 ②신자수: 1218명 ③관할구역: 효자1가 일부, 서완산동1, 2가 일부 ④현재신축현황: 조립식 가건물(132평) 성전신축 계획 아직없음.

화산동 성당: ①전주시 중화산동2가 산166, 사제관-전주시 중화산동2가 108-4 세진빌라303호 주임신부-김준호 ②신자수:

미정 ③현재신축현황: 가건물 예정.

평화동 성당: ①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470-1 ②신자수: 967명 ③관할구역: 서학동 일부, 평화동 일부, 완주군 구이면 일부 ④지하 1층 완공

호성동 성당: ①전주시 호성동1가 산8-5 전화(사제관78-0075, 사무실78-1140) 주임신부-정양현 ②신자수: 1138명 ③관할구역: 우아동, 호성동, 간중리 ④현재신축현황: 조립식 가건물(110평)

### \* 이 리 \*

송학동 성당: ①이리시 송학동 99-13 전화(사제관0653 51-5340, 사무실3-9713) 주임신부-이태주 ②신자수: 1206명 ③관할구역: 송학동, 모현동, 오산 용곡리 ④현재신축현황: 조립식 가건물.

### \* 군 산 \*

나운동 성당: ①군산시 나운동 843-6, 사제관-군산시 나운동 남전주택 라동203호 전화(사제관 63-8787, 사무실63-8788, 수녀원61-2442) 주임신부-박중신 ②신자수: 1540명 ③관할구역: 나운동 일부, 미룡동 일부 ④현재성전신축현황: 전세건물 2층 60평

조촌동 성당: ①군산시 683-17 전화(사제관42-1455, 사무실42-7191, 수녀원42-7131) 주임신부-전대복 ②신자수: 1357명 ③관할구역: 조촌동, 구암동, 경장동 일부, 내흥동, 개정동 ④현재성전신축현황: 현재 조립식 가건물.

남원 도동동 성당: ①남원시 도동동27-3 주임신부-유영도 ②신자수: 643명 ③관할구역: 주천면 고기리부터 동쪽으로 분할 육모정까지 시내-선운사 옆 육차선 ④현재성전신축현황: 미정.

# 새 성전을 건립하면서...

박성팔 신부/서신동주임

정한 날이라도 빛이 있으면 이루는 힘이 어찌다 역대이가 되었다. "어찌 이리 되까?" 하고 생각하면 서글프 그보다도 성전 운운하면서 적인 농담을 듣거나 거미줄 걸려 있는 십자가의 눈빛이 칠때면 미완의 내 모습을 보 것 같아 정말 괴롭다.

88년 5월 내가 처음 이곳 서 성당에 부임했을 때 원망과 에 빠진 신자들의 눈빛을 보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하고 내 나름대로 얼마 나 많은 번민을 했는지 모른다. 그래서 난 기회있을 때마다 "우리 비록 가난하지만 영적으로 제일 가는 부자가 됩시다" 하며 신자들을 달랬다. 정말이지 성전건립은 꿈에도 생각치 않았다. 그것은 눈만 뜨면 우후죽순 처럼 솟아나는 교회건물에 회의를 느꼈기 때문이고, 동굴이든 다락방이든 모이는 곳이 곧 교회였던 초대교회를 보면 진정한 의미의 교회는 집이야 어떻게 하느님 백성으로

서; 나눔과 섬김, 사랑과 봉사 그리고 일치와 공동체로서 이 세상에 구원의 표징을 보여주고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적당히 안주하려는 나의 인간적인 속성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나의 생각이 바뀌지기 시작한 것은 나 몰래 밤낮으로 철야기도니 9일 기도니 하면서 애를 쓰는 신자들의 눈물겨운 모습과 성전건립을 위해 천문학적인 헌금을 봉헌한 신자들의 깊은 신앙과 이쁜 마음 때문에 난 더이상 내 고집스런

생각에 머물 수가 없었다. 해서 난 적극적으로 신자들을 돕기 시작했고 이제는 일의 어려움보다는 하느님의 깊은 섭리와 사랑을 느낀다.

지금 우리교구엔 성전을 건립 중이거나 건립을 해야 하는 본당이 10개나 된다. 긍정적인 면에서 좋은 일이지만 성전을 건립해야 하는 신부님들이나 신자들의 마음은 그리 편치 않다. 더욱이 새 성전건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대개가 생활고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다. 새 성전 건립을 위해 애쓰는 신부님들과 신자들에게 큰 힘이 되도록 많은 이들의 기도와 성원, 형제애와 사랑을 기대해 본다.

**사무장 채용 공고**  
영세한지 3년 이상 병역피자 나이 27세-40세 미만 미시유:작전이역서 1봉, 영세종명시 1봉 집:주인 11시 미사후  
운전면허증 소지자 환영  
**효자천주교회**  
☎ 84-0915

**우자를 찾습니다**  
본인은 .32세로서 약간의 언 어장애자 입니다. 도자기 기술을 취득. 월 90만원 봉급.  
름:정동수(요한)  
락처:전주시 교동 1가 155  
화:84-0159

**양지카 - 서비스**

- ★ 자동차 기능장
- ★ 자동차 검사기사 1급
- ★ 중기 정비기사 1급

손 한 표(토마스)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 4가 80-4  
☎ 87-1977

전북도민 신문 담배 인삼공사 명동여관  
양지카 서비스

유치부 취학반) 오전반·오후반·종일반 모집중

**관인 햇님속셈학원**  
원장 채수연(요한)  
군산시 나운동 축협뒤  
☎ 62-4757

한글, 한문 기초부터 개별지도 (주부반 특별편성)  
**명문서예학원**  
원장 신기정(요한)  
효자성당 옆  
☎ 82-6492

소비자가 만든 1.2.3만원대구두  
**MISSMAN**  
신사화·숙녀화  
이강현(바로로)  
동문시거리 축협도지부 맞은편  
☎ 6-8565

**삼의피아노 코아특약점**

(코아백화점 3층)  
김동욱(마태오)  
채순님(소화테레사)  
☎ 80-1309  
86-1181

**사원모집**

당사는 전자부품 제조업체로서 성실한 생산직 여자사원을 모집합니다.

- 1.자 격: 만16세이상 34세미만
- 2.제출서류: 이력서·주민등록등본 1통
- 3.아간학교 입학생은 만14세 이상
- 4.기속가능함.
- 5.모집기간: 1990.2월5일부터 2월17일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로 문의 바랍니다.

**알·에프·하이텍**  
전주시 금암1동 1556-3  
☎ 5-3697

# 내가 사는 두번째 인생

진 길 주 (스테파노)

저는 제2의 생명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뒤늦게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지 겨우 두달을 맞은 것먹이 아이로서 겨우 걸음마를 시작한 단계입니다. 돌이켜보면 62년부터 공직에 몸담아 오면서 오로지 생존경쟁의 티전에서 현실에만 급급하고 종교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제와 생각하니 슬고한 종교를 배타적 시각에서만 보아온 과거가 매우 잘못되었음이 뉘우쳐 집니다.

내가 가톨릭을 택하게 된 동기는 30여년간 거친 공사생활 속에서 술과, 육구 충족, 그리고 비교적 요직이라는 위치에서 군림하여 오던 중 88년 초에 우연히 건강진단을 하기 위해 전북대학 병원을 찾아가 검진 결과 "악성 간종양" 즉 간암이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 순간 눈 앞이 캄캄하고 청천벽력 같은 죽음이라는 두려움과 견잡을 수 없는 갈등 속에서 혹



시나 하고 서울 대학병원에서 재진을 한 결과 같은 진단이였습니다. 시한부 인생이란 절망에서 간절히 수술을 받았는데 설상가상 격으로 늑막염과 당뇨의 합병증이 유발하였습니다.



이런 절박한 인생의 종말에서 간절히 간구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느님"이었습니다. 이런 때는 누구나 공통적인 심리일 것입니다. 극도의 고통이 지속되는 순간 내 병실에 수녀님이 방문하셨습니다. 마치 구원의 천사와도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카세트 테이프를 교리공부를 하게 되었고, 병세도 점점 회복 단계에 이르러 휠체어에 의지하고 미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날 미사중에 들려준 신부님의 강론내용이 신앙에 큰 힘을 주었고 하느님이 결코 인간이 미워서 병을 주신 것이 아님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입원중 영세를 굳이 사양한 이유는 심신이 약한 자의 양심에서 거룩한 영세를 감히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후 퇴원, 투병중에 전주 중앙성당에서 6개월간의 교리를 받고 88년 성탄절에 영세를 받았습니다. 그때 "주여 입하소서"라는 성가 중에서 "내피요 살이요 생명이요"라는 가사에서는 목이 매이고 한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마도 50여평생에 이런 뜨거운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성령이 제 온몸을 흠뻑적심을 느꼈고 그후 건강도 점차 회복되어 직장에서 충실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장의 로사리오 모후 브레시디움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온가족과 함께 주님을 섬기며 맞는 새로운 한해, 제 생명을 연장시켜주시는 주님께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지... 뒤늦게나마 남은 인생을 주님의 도구로서 오로지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갈 것을 다짐하면서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 요심이 (861) 김병오



## 뿌리를 찾아가시

### 성 김대건 신부님의 첫 상륙지

# 나바위 성당

현 나바위 성당 소재지인 익산군 망성면은 원 여산군의 북1면, 북2면, 북3면, 북4면 등이 합하여 된 것이나, 그 지역은 한 때 은진군(恩津郡), 강경현(江景縣)에 속하기도 하였다.

현 익산군은 17면으로 되어 있는데 전면적 524,84평방킬로이다. 지세는 동북과 서북부에 여기저기 구릉이 있으나, 그 나머지는 평탄한 지대로서 호호망망한 강경들에 연결되어 금강, 만경강의 연안으로 무진장의 농토가 열려있다. 이 나바위 지방은 전라도 최초 본당의 하나인 지대로서 그 역사적 유서가 깊은 고장이다.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 교회사에 특기된 사실은 성김안드레아 대건(大建)신부가 고주교와 안신부(다블뤼-후에 주교됨)를 모시고 1845년 10월 12일 밤에 이 나바위 근처인 황산나루(凰産浦)에 상륙하여 성웅적 활약 10년에 금의 환향한 곳이어서 더욱 유명해졌다.

“ 이 나바위 지방은 전라도 최초 본당의 하나인 지대로서 그 역사적 유서가 깊은 고장이다. ”

이런 역사적 성지인 나바위에 성전이 세워진 것은 전주교구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1888년 7월 장요셉 신부가 전주지방 담임으로 역임한 후 본당 1897년 용안 안대동에 우거하면서 본격적으로 나바위에 기지와 집을 매수하여 그곳으로 옮기게 된 것이 화산교회의 시초이다. 1906년에 성당과 사제관을 신축하고, 학교 교사를 지어 계명(啓明)학교를 설립하여 아동교육을 베풀었고 나바위 인근 부락이 거의 입교하는 교세확장의 터전이 되었다.



## 교구소식

### 방송 안내

- ① C.B.S(기독교 방송) 1314KHz  
\* 매일의 저녁기도를 위하여 "평화가 있는 이 밤에": 매일밤 11시15분~30분  
\* 매주 방송 주일 강론: 매주 일요일 밤11시15분~30분  
\* 시사평론: 매주 월요일 아침8시~8시10분
- ② M.B.C(문화방송) 855KHz  
\* 토요일명상: 매주 토요일 밤10시25분

1. 본당 사무장, 사무원 연수회: 2월14일(수) 오전10시 장소-가톨릭센터 회의실
2. 전주선택: 집결-2.9(금) 오후2시30분 가톨릭센터 준비물-세면도구, 미사도구, 필기도구
3. 초등부 교리교사 동계연수회: 일시-1990년 2월 17일(토)~19일(월) 장소-무주 자연 학습원 참가신청-2월3일(토)까지 교육국
4. M.B.W(그리스도 공동체 수련회) 기초과정: 일시-2월19일~21일 장소-천호피정의 집 참가비-30,000원 출발-19일 9시 30분 가톨릭센터에서 문의및 접수-교구청 교육국(85-0041)
5. 성령선교 수녀회 성소피정: 2월11일(매월둘째주) 오후2시 대상-수도생활에 관심있는 고졸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여성 곳-성령선교 수녀회(서울시-성북2동 253-2·성북2동사무소 뒤) 문의-(02)764-4750
6. 교도소사목 후원 헌금 온라인구좌변경: 국민은행 506-01-0290-473

## 솔미피정의집

피정제목: 루카복음과 함께  
때: 1990. 2. 16(금) ~18(일)  
대상: 천주교 신자, 수도자, 성직자  
비용: 독방 30,000원, 2인공동방 25,000원  
장사: 김정수 바르나바 신부님  
신청접수: (0457) 362-5021~2

### 교사초빙

1. 과 목: 영어
2. 구비서류: 이력서 1부, 호적등본 1부, 고등학교생활기록부사본 1부, 대학교전학년성적증명서 1부
3. 제출처: 성심여중고서무과 (84-3244)
4. 제출마감: 1990. 2. 10(토) 오후 1시
5. 면접일: 1990. 2. 12(월)

학교법인해성학원



- 주 단
- 침 구
- 훈 수 전문

## 부인주단

김 한중(요한)  
황 인재(모니카)  
전주시 전동 남문앞  
84-7294

## 성심木공업사

성구·제대·강릉대·제구장·긴의자  
탁상·화분대·흔레용기구 맞춤전문  
서 스테파노(옥봉)  
한 안나(은순)  
전주 ☎ 77-1747

## 꿈란불치병상담소

중풍·관절염·디스크·신경통  
박장춘(벨리치도)·임혜선(애스텔)  
자연식품 및 송죽알로에  
(주부사원 수시 모집)  
인후 2단지 금성교회 앞  
☎ (사) 251-0848, (자) 82-3271

금·은·보석·시계(예물상담)  
**가 보 당**  
최유호(사무엘)·김정자(모니카)  
중앙성당 ← 전주시청 중간지점  
☎ 84-2243



두울·鮮京커피, 스완카페트  
실키브라이트·훈수예품

## 나비커피텐

점 길(알베르도)  
김 강(엘리사벳)  
중앙동 가구점길(에이스점대앞)  
☎ 82-2226.86-5611

## 반석영어학원

“ 초·중·고 영어  
실력·성실·경험으로  
지도합니다. ”

강사: 이 양 구(베드로)

☎ 78-0825

광주고속버스 앞  
신성모놀랑점 옆

# 신자들의 소리

## 어머님의 장례식을 마치고

### 알고봅시다

모든 비디오 테이프를 영화화 할 수 있는  
첨단 영상기 액전비전



금번 교구 홍보국에서는 액전비전이라는 최신 영상기를 구입하여 본당, 단체에 방영합니다.

○ 방영료: 시골본당 및 공소 단체-2만원(출장비 포함), 도시본당 및 단체, 학교-4만원(출장비 포함)

○ 총139편: 기록(18), 어린이(31), 교회사(3), 성인전(40), 명화(38), 교육(9)

○ 문의: 천주교 전주교구청 홍보국 85-00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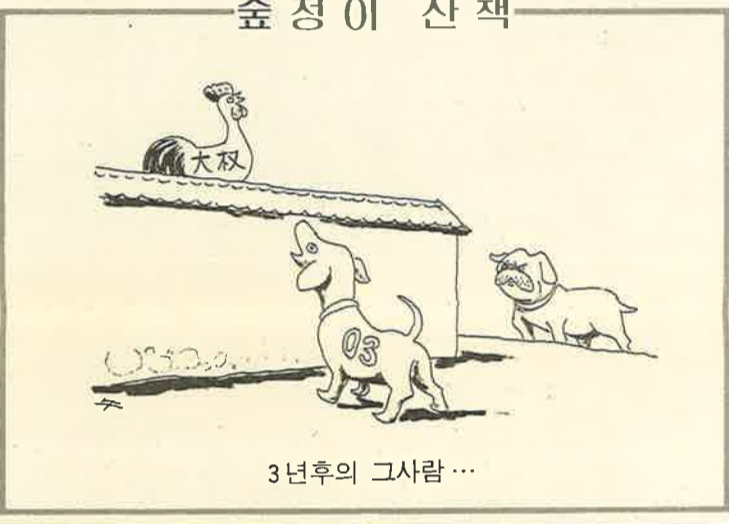
지난 4월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계시던 친정어머님께서 세상을 떠셨다. 가슴 아픈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막상 다친 장례 절차 문제는 그 와중에서도 나를 조금은 정신차리게 했다. 어머님께서 30년간 믿어오신 천주교의 예법에 따라 장례를 지내자는 내 의견에 "우리 전주 이씨 집안에서는 천주교인지 예수장이인지 그런 것 모른다. 우리 대대로 내려온 유교식으로 장례를 모셔야 한다"고 완강하게 못박아버린 당숙 어른을 혼자 힘으로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앞이 캄캄함을 느끼면서 정신을 차리고 이해를 시켜줘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아버님과 당숙어른 이외에 많은 집안 식구들 앞에서 1시간이 넘게 설득을 했다. "그러면, 네 맘대로 해라. 난 모른다" 하고 버럭 화를 내시며 당숙 어른께서 나가 버리셨다. 한참만에 다시 들어오시더니 입관과 성복 제단은 절대로 예수장이한테 못 맡긴다는 완강함을 꺾을 수 없어 나는 반반으로 해결을 보고 장례 준비를 하는데 우리 교우들의 정성어린 연도 행렬이 줄을 잇자 당숙께서는 기도 내용에 귀를 기울여 다소 마음이 풀린듯 표정으로 "세상에 별일도 다 많구나! 남의 일에 얼마나 한가해서 내일처럼 이렇게 할 수 있냐!" 하시며

처음으로 부드러운 말씀을 하셨다. 약속대로 애령 회장이, 저희가 준비를 해드릴테니 어른들께서 입관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30여명이 숨소리없이 지켜보는 가운데 익숙한 솜씨로 정성들여 하는 것을 보시고, 입관까지 하라고 눈짓으로 말씀하셨다. 일이 다 끝난뒤 아버님과 당숙께서 하신 말씀인즉 "70평생 수없이 입관을 했던만이 젊은이들처럼 정성스레 치르는 것을 보지 못했다. 오늘 내가 많이 배웠구나. 천주교가 이렇게 좋은 줄도 모르고 늙어버렸구나." 하셨다. 나는 애령회원들이 너무 고맙고 그렇게 이해해주신 어르신네들도 너무 고마와서 눈물이 쏟아졌다. 당숙에게 "한 가지 더 남았어요! 내일 아침 성당에서 마지막 장례 미사를 드려야 장지에 갈 수 있어요"라고 말씀드리자 "그래 해야지"하고 승낙 하셨다. 주님을 전혀 모르던 완고한 집안 어른들에게는 천주교 장례 모습이 또 한번의 충격이었던 것 같다. 조용한 가운데 많은 신자들이 나와서 이처럼 기도해주니 정말 고마운 일이라고 하시며 이제 부터는 우리 집안에서부터 성당에 다니라고 권고 하시겠다고 입을 모으셨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고 집안에 벌써 영세한 신자가 2명이고 개신교에서 집사

까지 지내시고 계시던 외갓집 할머니께서도 성탄이 지나고 나면 천주교로 오시겠다고 하셨다.

이 모든 게 우리 주님의 은총이며 애령회 임원들의 정성이며 신자들의 기도 덕분이라 믿고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우리의 바른 생활과 실천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된 복음의 전파라고 느껴진다.

덕진성당/이 미 순(골롬바)



### 새로나온 책

■ 제네시의 일기 ■

H. 뉴엔이 북부 뉴욕에 있는 제네시의 트라피스트 수도원에서 지낸 7개월 동안의 영적일기이다. 매일매일 있었던 모든 순간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느님의 현존 앞에 펼쳐 보이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점차적으로 자신을 개방해가는 과정을 보게 된다.

H·뉴엔 지음/성한성 옮김/성바오로 출판사/3,400원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노송동**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이 재 후  
사무실 82-9661 보좌신부 김희태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노송남

1. 미사시간변경: 5일부터 실시 평일미사-새벽5시30분, 저녁7시30분 그외 미사 변경 없음. 공소미사 4일부터 3시30분
2. 모임: 울뜨레아-저녁8시 자모회-오늘 공식미사후 성심회, 성가대 월례회-6일미사후 성령기도회-8일 7시30분 사목회 월례회-9일 7시30분 꾸리아 월례회-11일 2시
3. 선택 제4차 모임: 9일~10일 회비20,000원 분당지원10,000원
4. 탈삼미사: 5일 11시 다리리공소 김종순(가타리나씨)택 8일 12시 손마리아씨택 5. 가점미사: 6일 8시 유귀래 7일 11시 박신식
6. 공소 성령세미나: 15일~17일 오후2시~5시 장소-왕정리 공소
7. 축! 결혼: 10일 12시 신랑-이양구(베드로) 신부-윤민자(크리스티나), 11일 12시 신랑-장호열(요한) 신부-전향남

□ 지난주봉헌금: 809,970원 □ 교무금: 387,000원

**\*서학동** 사제관 84-8307 주임신부 서 석 기  
사무실 86-4929 사목회장 김 명 응  
수녀원 84-2276

※ 오늘은 연중제5주일입니다.  
※ 초축성: 제대초, 가정초-오늘 공식미사중. 1년동안 쓰여질 제대초 봉헌 바랍니다.

1. 회의: ①사목회-2월7일(수) 저녁미사후 ②자모회-2월7일(수) 오전10시30분
2. 모임: 울뜨레아-2월8일(목) 오후8시
3. 일일: ①예비자환 인도합시다-교리시간 매주일 공식미사후, 매 주 수요일 오후7시30분 ②초·중·고등부 교리교사모집-봉사 하실분 수녀님께 ③초등부 교리교사 회장-박선희(젬마) 수고 하시겠습니다.

**\*평화동** 사제관 85-6979 주임신부 박 병 준  
사무실 83-8245 사목회장 김 광 환  
수녀원 87-0229

1. 제단체장 피정: 오늘 오전10시~오후5시(장소-환산여상)
2. 구역장 월례회: 공식미사후
3. 자모회: 6일(화) 오전10시30분 4. 성심회: 7일(수) 오후2시
5. 형제회: 7일(수) 오전-5.7.9.21반 오후-2나.2다.14.26반 8일(목)오후-4.6나반 저녁-1,27,28,29.8반 9일(금)저녁-3,10,11,13반
6. 제대회: 다음주 공식미사후
7. 주일학교 6학년 졸업식 및 종업식: 10일(토) 오후3시
8. 금주전례: 해설-박민희 성인복사-장치규 서정희 봉헌-김형분부부

차주전례: 해설-문지구 성인복사-김나섭 김광택 봉헌-홍순강부부

□ 지난주봉헌금: 436,230원 □ 교무금: 508,500원  
□ 구리주일 2차헌금: 206,750원

**\*복자** 사제관 86-3453 주임신부 김 기 수  
사무실 86-3455 사목회장 신 일 균  
수녀원 86-3454

1. 사목회: 오늘 저녁미사후 2. 대건회: 오늘 공식미사후 3. 밀알회: 오늘 공식미사후 4. 빈첸시오회: 6일 오전10시 5. 울뜨레아: 6일 저녁미사후 6. 자모회: 8일 오전10시 7. 안나회: 8일 오전10시 8. 여성분과회: 10일 오전10시 9. 꾸리아: 11일 오후2시 10. 청년회: 11일 저녁미사후
11. 각 신심단체는 사무실에 회원 명단을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11일까지)

금주전례: 해설-최정순 독서①조성호 ②신형순 봉헌-조성호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유귀자 독서①육태수 ②박진희 봉헌-육태수씨 부부

□ 지난주봉헌금: 535,160원 □ 교무금: 759,650원

**\*용머리** 사제관 84-8123 주임신부 조 정 오  
사무실 87-0441 사목회장 오 직 환

1. 혼인객신식: 공식미사후
2. 꾸리아 모임: 공식미사후
3. 구역반장 모임: 2월6일 화요일 10시 많은 참석바랍니다.
4. 울뜨레아 모임: 다음주 공식미사후
5. 베로니카 모임: 다음주 공식미사후
6. 청소년사: 주공3단지 동원(5일~10일까지)

□ 지난주봉헌금: 356,500원 □ 교무금: 513,000원

**\*효자동** 사제관 83-3841 주임신부 유 종 환  
사무실 84-0915 보좌신부 김 태 환  
수녀원 84-4804 사목회장 황 수 석

1. 환영! 김태환 신부님 부임 환영식: 오늘 11시 미사후
2. 축! 영세: 오늘 오후3시 축하식-영세후(교육관) \*미사겸함
3. 구역봉사자 모임: 2.7(수) 오전11시(교육관)
4. 울뜨레아 모임: 2.11(일) 11시미사후(교육관)
5. 유아세례: 다음주 오후5시
6. 예비자 교리반 모집: ①일요일반-오전9시30분(교육관) ②수요일반-오후7시미사후 ③금요일반-오전10시미사후(교육관)
7. 평일미사 안내: 게시판 참조
8. 지축적인 성체조배에 적극 참여 합시다.
9. 성소담당: 금주-삼천주공2단지 차주-광진 서부거성, 효자1단지
10. 교무금 신임세대: 390세대(35%)

□ 지난주봉헌금: 914,830원 □ 교무금: 355,000원  
□ 구리주일헌금: 321,350원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양 석 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김 종 석

※ 초축성: 공식미사후, 제대초 봉헌하세요.

1. 교무금 납부의 날: 매월 첫주-교무금 월납제 지켜 주세요.
2. 꾸리아: 공식미사후
3. 성경읽기: 출애31: 18~33장 끝
4. 구역형제회: 6일-서당 7일-내정
5. 금주전례: 해설-송봉덕 독서①정환모 ②강경자 봉헌-김철중 서병철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안동기 독서①김봉길 ②구영순 봉헌-박금구 강문옥씨 부부

□ 지난주봉헌금: 257,580원 □ 2차헌금: 105,240원

**\*전동** 사제관 본당 86-5789 보 좌 82-7245 주임신부 이 수 현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박 중 총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 안 득 수

※ 성전보수헌금 바랍 \*90년 교무금 미신임세대는 신임바랍  
※ 환영합니다: 신임 보좌신부님 박중총(레오)신부 공식미사후-환영식

1. 재속글라라 형제회: 오늘 오후1시30분 2. 구역봉사자모임: 오늘 저녁7시 반기도회-6일~9일 반미사-6일(전동2반) 7일(전동6반) 8일(전동7반) 9일(동교동1반)
3. 성체강복및 성체조배: 2월8일(목) 오전10시 성체강복후 성체 조배(구역반별 배정표는 게시판에 게시함) \*사목회-다음주 공식미사후
4. 수요일은 나라를 위한 기도 미사가 있습니다: 저녁 7시미사
5. 100주년 역사편찬자료를 수집합니다. 6. 풍물(국악) 강습 희망자 모집
7. 예비자 환영식: 2월11일 공식미사후

□ 금주보수비헌금액: 6,160,000원 □ 현재신임총액: 211,381,299원 □ 금주보수비헌금액: 7,430,000원 □ 현재모금총액: 123,220,629원 □ 지난주봉헌금: 1,266,360원

**\*효자우전** 사제관 86-3712 주임신부 박 창 신  
사무실 86-3711 사목회장 김 흥 두  
수녀원 87-0711

1. 사목회 임시총회: 공식 미사후 양초봉헌-공식미사중 2. 반회합 일점: 매월 첫주간
3. 성모회: 9일(금) 어머니미사후
4. 공소미사: 9일(금) 오후3:00-독배 저녁7:30-이서
5. 교무금은 월별로 정성껏 봉헌합시다.
6. 가정방문: 6일(화)-만철리 7일(수)-독배

중화산동 신자 미사: 11일(다음주) 오후3시

차주모임: 울뜨레아

금주전례: 해설-김응우 독서①함제영 ②홍성경 기도-김홍두 정영호

차주전례: 해설-박명래 독서①안문수 ②김미숙 기도-이충상 박선희

□ 지난주봉헌금: 518,540원 □ 교무금: 824,000원

※ 파티마신협 남직원모집: 연락처 82-9127~8